



9월의 기도

1. 주님, 저희는 조용기 목사님의 추모 4주년을 맞이하여 그분의 헌신과 사역을 기억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믿음과 열정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남기신 유산을 따라 저희도 선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각자도 목사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사랑하는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역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도 주님의 평안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사랑이 세상 곳곳에 퍼져 나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 되어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4. 가을의 문턱인 이 계절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2)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전쟁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무려 40억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낸 해수는 292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왜 이렇게 고난으로 가득한 것일까요?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과학이 발달되고 영농 기술이 발전되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과 살상이 없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끝없는 자유가 보장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20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지만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탐욕을 추구하고 물질을 우상화하는 것이 개인을 점령하면 개인이 망하고, 가정을 점령하면 가정이 망하고,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집과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먹고 살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들의 정신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한, 그들의 삶에는 거센 풍랑이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거친 풍파에 부딪쳐 파선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나라와 이웃과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배를 운행하고 있는 자신의 정신상태가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기를 바라고 전에, 여러분의 건강을 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영혼이 잘된 이후라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September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되돌아보는 DCEM 2006년 해외성회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인구(81억 6천만 명) 중 국제 이주자는 3억 400만 명에 이른다. 인구의 국경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복잡하고 다층적인 정책과 통합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국 땅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여전히 크리스천으로서의 소명을 이어가는 모임 ‘북미 케랄라이트 오순절 컨퍼런스’에 대해 회고해보고자 한다.

북미 케랄라이트 오순절 컨퍼런스는 사도 도마에 의해 처음 복음이 전해진 남인도 케랄라주에서 오순절 신앙을 가지고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만든 모임 중 가장 큰 대회로 지난 1983년 오클라호마에서 첫 컨퍼런스를 가진 이래 뉴욕과 시카고 등 미국의 10개 도시를 순회하며 컨퍼런스를 개최해 왔다. 이들은 1965년 개정된 이민법의 힘을 얻어 이주해 온 이주민들이 대부분이며 오순절 신앙을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2006년 24회를 맞이했던 컨퍼런스에서는 조용기 목사를 초청, 오순절 목회자들의 노고와 선교사역을 치하하고 북미 케랄라이트 간의 친교와 영적 성장,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컨퍼런스였다. 이는 과거 치러진 모임 중 가장 큰 규모로 치러졌으며 3500여 명의



청년들을 비롯해 300여 개의 케랄라이트 교회가 참석했던 역사를 남겼다.

미국에 정착한 인도 이주민들을 위한 조용기 목사 초청 ‘제24회 북미케랄라이트 오순절 컨퍼런스’는 2006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 이틀동안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위치한 알링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미국 독립기념일을 일주일 앞두고 달라스 알링턴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컨퍼런스는 이민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인도와 미국 그리고 전세계 케랄라이트 성도들의 축복과 번영을 위하여 함께 기도한 자리였다.

성회가 열린 알링턴컨벤션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인도인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미 전역에서 몰려온 인도 케랄라이트들은 어김없이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라스로 몰려왔다.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쿠웨이트와 본토인 인도 케랄라에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자녀들과 함께 성회에 참석했다. 알링턴컨벤션센터 그랜드홀을 가득 메운 케랄라이트들은 조용기 목사의 설교에 앞서 인도의 전통음악에 맞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요12:26)’는 주제로 열린 24회 컨퍼런스는 인도의 서남단 해안지방의 언어인 말라얌을 사용하고 있는 인도인들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케랄라이트 성도들 그리고 젊은 세대와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세미나 등 총 7개의 세션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성회 주 강사로 초청되어 말씀을 전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케랄라이트 전체가 참석하는 두 번의 주요 세션에 참석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제24회 북미 케랄라이트 오순절 컨퍼런스는 인도는 물론 미국 달라스, 뉴욕, 텍사스, 오클라호마, 시카고에서 그리고 캐나다와 쿠웨이트에 살고 있는 500여 명의 케랄라이트 성도들도 함께 참석해 많은 기적과 변화를 경험한 뜨거운 성회였다.



고난은 잠든 자를 깨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그 누구도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생이 고난으로 가득하였습니까?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세기 2장 17절)”고 경고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모든 인생이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이 가시와 열매를 얻는 것을 먹음으로 인류는 고통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같은 죄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근본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충명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시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다.” 하면 아담은 “안 좋습니다.” 하와가 “참 예쁘다.” 하나님은 “예쁘지 않다.” 이런 경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두 쪽, 세 쪽이 되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결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경쟁하며 우주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려면 이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사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이 이 세상에 계속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것을 분명히 말해 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탄은 오늘날에도 이러한 죄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1. 고난의 원인

고난의 원인은 정욕에 따라서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욕이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타락한 성격, 방종, 마치 돌로 떡으로 변한 것과 같은 방탕이 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쾌락의 환경, 자기의 잘남을 천하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력이 못 미쳐도 재력을 취득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 무신론을 주장하고 물질 만능주의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 무신론을 주장하고 물질 만능주의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기독교의 작가,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불신앙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귀먹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통의 메가톤을 불고 호통을 당하도록 허락해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야 사람들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둘째가 달라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재산을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 다 쓰고 돼지소굴로 들어가서 돼지 열매를 먹어도 없는 처지에 처해 고통으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는 회개했습니다. “내가 아들이라 일컬을 당하고 아버지에게 빈 손돌고 가니 아버지께서 날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돌아왔는데 고난이 선생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음으로 이 사람이 회개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2. 새로운 인생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중생한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난 영혼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이거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 영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우리들은 새로운 인생,

즉 중생 거듭난 삶을 갖게 된 사람으로 영도 살고, 혼도 살고, 몸도 살아서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을 따라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로마서 8장 1절~2절)” 유신론적인 삶을 주장하며 성령으로 중생하여 천국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3. 고난의 유익

고난은 고난 당하는 사람을 깨우치게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인생길을 따라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었으나 징계하는 책적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잠언 22장 15절)” 고 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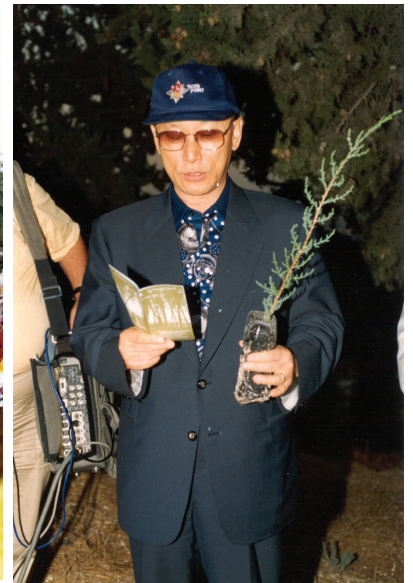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를 그의 친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징계의 유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히브리서 12장 10절~11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돌보아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세아 6장:1절)”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것은 변화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잘못된 길을 가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고 치료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먼저 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뜨거운 불에 넣어 굽습니다. 그러면 거친 그릇이 매끈하고 아름다운 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고난을 통할 때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기 23장 10절)” 성도들의 삶에는 다 가슴 아픈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변화된 삶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6

땅을 차지하는 사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5:5)

‘온유하다’는 의미가 무엇이지요? 말 그대로 하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된 본뜻은 ‘잘 배우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짐승 중 온유한 것은 가축입니다. 가축은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짐승은 주인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가축 중에도 가장 온유한 짐승은 개입니다. 주인의 말을 절대적으로 듣고 따르는 것이 개입니다. 개는 주인이 악한 자 일지라도 절대로 순종합니다. 성경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믿음 좋고 용감한 ‘갈렙’의 이름은 ‘개’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온유한 짐승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격



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겨울에도 먹이를 다 준비해서 염려없이 월동을 하게 하고, 사나운 짐승에게 찢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전적으로 가축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주인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 잘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

계산 물질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이 세상의 금과 은과 보화는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물질을 쓰면 나빠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훈련을 잘 받고,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먹을 것에 복을 주시고, 원수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케 하고 복을 주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여 우리 개인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나도, 우리나라도 이 땅에서 기업으로 얻어 오종복음과 삼중축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영산강해는 조용기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



사람은 들짐승과 같습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자기 운명을 자기가 돌보려고 하니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은 천국 뿐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주님이 물질의 부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물질은 나쁜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나쁜 것이라면 하나님이신 예수